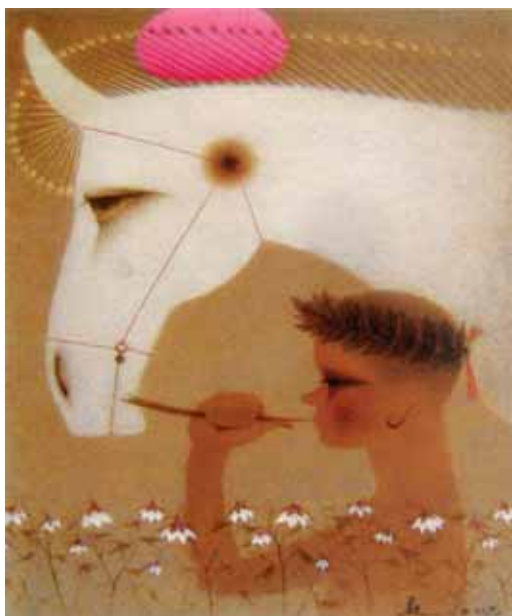


# 지역 추상미술 토대 다진 최종섭 작품 세계로



박창돈 작 '가을'

## 원숙美

데미화랑 12월 5일까지 'Neo Art Flow'전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원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예술의 거리 데미화랑은 오는 12월 5일까지 'Neo Art Flow'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박창돈, 최예태, 황호섭, 손장섭, 황제성 작가의 유화 작품과 이우환, 김장열, 김홍수, 김형근 작가의 판화 작품 등 모두 11점이 전시된다.

판화 작품은 이우환의 '조응(照應)', 김장열의 '물방울' 시리즈 등이다. 두

작가는 최근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내 작가들이다.

전국 각지의 신성한 나무들을 형상화 했던 완도 출신 작가 손장섭의 작품, 맑고 소박한 심성에 바탕을 둔 서정성 짙은 작품들을 선보여온 박창돈의 유화도 전시된다.

한국의 자연이 지니고 있는 넉넉한 심성과 기운을 붉은색으로 담은 최예태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70-4388-950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피아니스트 김정아의 도전

내달 1일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곡 연주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건반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으로 꼽힌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제 1곡 '아리아'를 시작으로 30곡의 다양한 변주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비포 선라이즈'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도 삽입돼 클래식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정아씨가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 일환으로 '골드베르크 변주곡' 전곡 연주를 갖는다.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시간만 1시간이 넘는 이 곡은 30개의 변주를 다양한 색깔로 표현해야 하는 터라 연주자들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영혼을 노래한 화가 반 고흐의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에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김씨는 빈 시립음악대에서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등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광주시향, 우크라이나방송교향악단 등과 협연했다.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호남지부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티켓 가격 2만원(학생 50%할인).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

"형(최종섭 화백)은 작가적인 천부적 재능 이전에 대단히 명석하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사람이다. 형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갔던 '남부현대미술제'와 '광주-요코하마 현대미술전'을 비롯한 유럽과의 여러 국제전들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김종일 전남대 명예교수)

"구상과 비구상 작업의 선택의 번민 속에 힘들어 할 때 형의 권유가 커다란 힘이 되어 추상작업의 길을 선택했다. 형은 1964년 현대작가 그룹 '에쁘끄(Epoque)' 창립에 이어 국적한 국제전을 개최하면서 광주에 새로운 현대미술운동을 주도했다. 작업에서도 매우 실험성이 강했으며 특히 한국적 재질인 한지작업에 깊이 매료되어 많은 작품을 남겼다."(우재길 미술관 관장)

고(故) 최종섭(1938~1992) 화백은 1963년 '창작동인전'에 처음으로 유화 추상작업을 발표한 후 지역 화단에 추상(비구상) 미술 토대를 만든 1세대 강용운·양수아 화백 등에 이어 2세대 작가로 추상미술 발전에 힘썼다. 특히 이듬해 YMCA 2층 강당에서 열린 '박상섭, 최종섭, 명창준 비구상 3인전'을 계기로 서울의 '오리진', 부산의 '혁(赫)'에 이어 한국 3번째의 비구상 그룹인 '에쁘끄'를 창립해 주도적으로 새로운 미술활동을 펼쳤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2014 원로·작고 작가 초대전으로 '최종섭, 코리아 판타지(Korean Fantasy)'를 내년 2월 22일까지 본관 제3, 4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매년 지역미술계와 한국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원로·작고 작가를 선정, 그 예술성과를 연구·조명하기 위해 초대전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 오늘 개막...내년 2월 22일까지

## 1960년대 한국 현대미술운동 주도... '에쁘끄' 창립

1960년대 전후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한국현대미술운동에 기여한 최종섭 화백 회고전을 마련했다. 추상미술 토착화를 위해 노력한 최 화백이 지난 1992년 세상을 떠난 지 2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전시다.

1960년대 한국화단은 젊은 유학파들에 의해 구상미술이 '국전'이라는 무대를 발판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당시 최종섭 화백은 영포르멜의 영향을 받아 광주화단의 추상미술운동을 이끌었다. 추상미술의 토착화를 위해 '에쁘끄'를 결성하고 예술세미나, 현대미술제 유치, 국제교류전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자신의 심상에 있는 주관적인 개념

이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질을 탐구하고 그 내면의 조형적인 질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인 '코리아 판타지'를 창조했다.

'코리아 판타지'라는 제목으로 시도되었던 작품들은 그가 이루고자 했던 우리의 것, 우리의 정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결과물이다. 때문에 최 화백의 작품에서는 '한국적 풍토와 정서'를 관통하는 예술의 본질을 읽을 수 있다.

최 화백은 광주일보와도 인연이 깊다. 그는 비구상 미술이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의 도움으로 전일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월간 애향 등에 글을 쓰기도 했다.

당시 최 화백의 개인전 서문에서 미술평론가 김인환은 "나는 '장엄한 침묵의 언어' 같은 것을 본다. 단색으로 칠해진 캔버스 위에 기다란 세선(細線)을 반복하여 늘어놓아 본다든지 온통 점점(點點)으로 매워 본다든지 하는 무상의 행위 가운데서, 그렇듯 냉랭하고 건조하기조차 한 과묵한 화면 위에서, 어떠한 단호한 결의를 읽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최 화백은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 교사로 재직하며 작품활동을 했고, 일본과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 개막식은 27일 오후 4시다. 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극단 시민·동신대 방송연예학과

## 제1회 시민愛 페스티벌 개최

연극 '이상과 천수'·뮤지컬 '그리스' 등... 오늘부터 공동예술극장

지난 1976년 창단한 극단 '시민'(대표·예술감독 정철 동신대 교수)은 광주에서 가장 오랜된 극단이다. 피터 셰퍼 원작의 '에쿠우스'를 창단 공연 작품으로 올린 후 '소작지'로 제1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85회 정극 공연을 진행했다.

극단 시민과 동신대 방송연예학과가 산학합동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제1회 시민(愛)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2월 14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공동예술극장.

27~28일 오후 8시 공연하는 '이상과 천수'(사진)는 서울 2인극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작품으로 부차기간의 갈등과 연민을 잔잔한 감동으로 그려내고 있다.

유명 지휘자인 이상의 수첩에 적힌 아들 천수에게 요양원 간호사가 연락을 하고, 천수가 요양원을 방문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윤희철, 이현기·표진위씨가 출연한다.

뮤지컬 '그리스'(12월 1일~5일 오후 7시 30분, 6~7일 오후 4시·7시 30분)는 짐 아이크스의 히트 뮤지컬을 동시대 방송연예



과 학생들이 각색하고 연출한 작품으로 친숙한 뮤지컬 넘버들을 만날 수 있다.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이 신나는 춤과 노래로 펼쳐진다. 이한별·조은영·장도영·신정연씨 등이 출연한다. 마지막 작품은 '늦은 행복'(10~12일 오후 8시 30분, 13~14일 오후 4시·7시 30분)이다. 늦은 노부부를 통해 삶의 의

미를 잔잔히 돌아본 작품이다.

치매에 걸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노부인과 매일 매일 새로 만나는 연인인양 살아가는 남편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김민호씨가 희곡을 쓰고 연출을 맡았으며 지역 중견 배우 박규삼과 윤미란이 출연한다. 문의 010-8264-84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파죽지는 빛깔 5회 연속 선정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www.geumsoojang.com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 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마감시공 4. 옥상시공후

배란다 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